

21세기 신동북아 시대를 연다

노무현 대통령  
방일외교

2003. 6. 6 ~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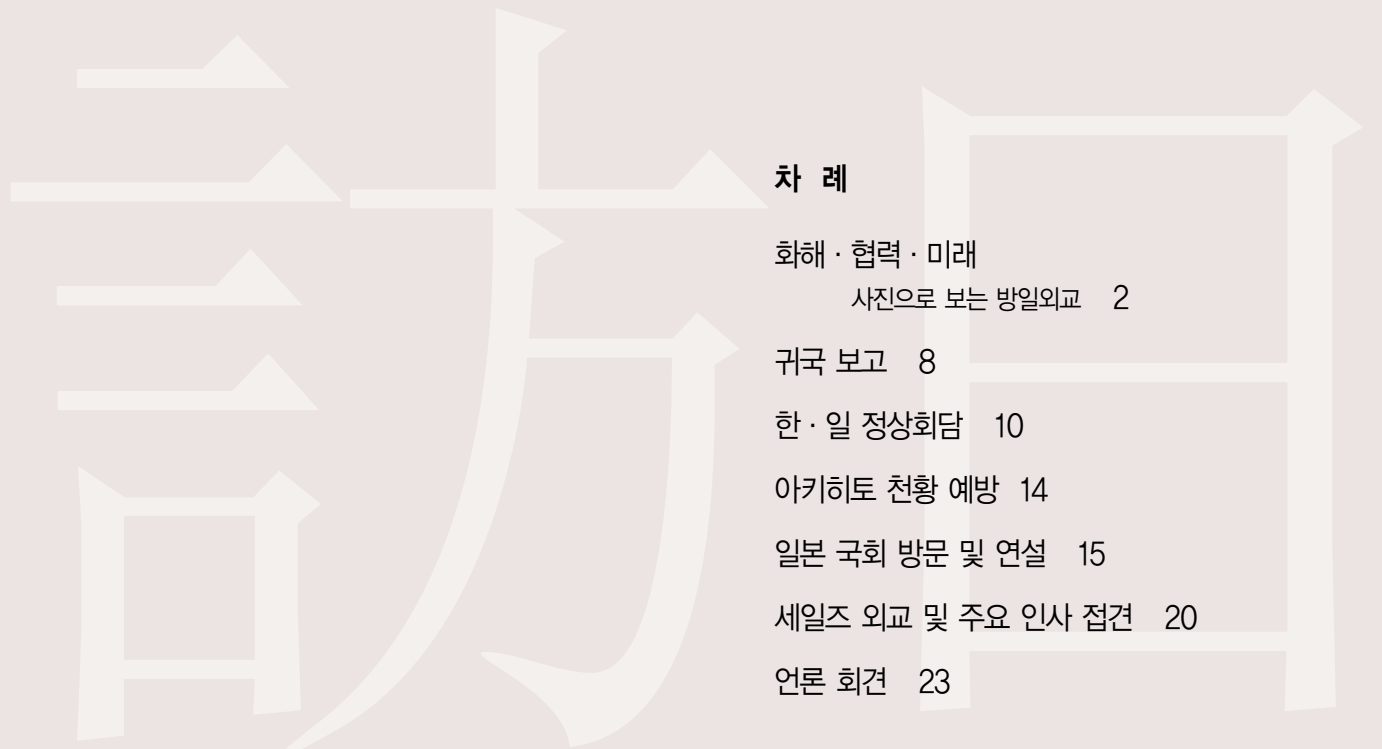
노무현 대통령 방일외교

발행처 · 국정홍보처 [www.allim.go.kr](http://www.allim.go.kr) | 발행인 · 조영동  
편집제작 ·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www.ktv.go.kr/news.go.kr](http://www.ktv.go.kr/news.go.kr) | 편집인 · 고석만  
발행일 · 2003. 6. 20 | 인쇄 · 삼성문화인쇄(주)

국정홍보처



21세기 신동북아 시대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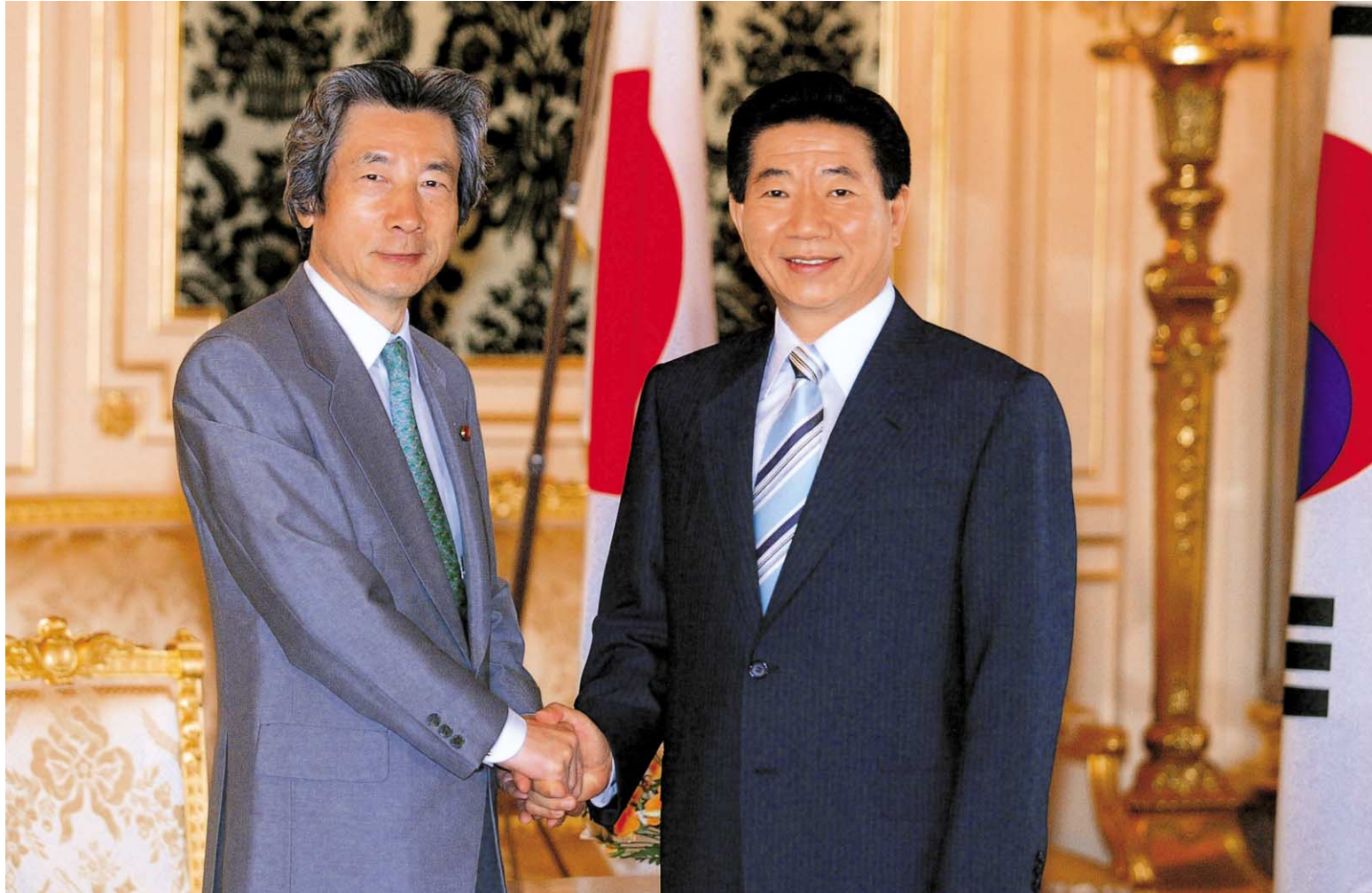
차 례

- 화해·협력·미래  
사진으로 보는 방일외교 2
- 귀국 보고 8
- 한·일 정상회담 10
- 아키히토 천황 예방 14
- 일본 국회 방문 및 연설 15
- 세일즈 외교 및 주요 인사 접견 20
- 언론 화견 23



# 화해 · 협력 · 미래

## 사진으로 보는 방일외교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강화”

일본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 등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했다. (6. 7, 위)

노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내외신 기자들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 위)

TBS(도쿄방송) 특별 프로그램 '일본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 노 대통령이 출연자들에 둘러싸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6. 8, 오른쪽 아래)







## “미래를 위한 협력의 새길 제시”

영빈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동포들의 환호에 답례하고 있다. (6. 6, 위)

단독 정상회담에 이어서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6. 7, 아래)

일본 국회를 방문한 노 대통령이 700여명의 의원이 경청하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6. 9, 오른쪽)







## “동북아 경제허브에 대한 협력 촉구”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경제 4단체와  
일·한 경제협회 공동주최 오찬에 참석, 대화하고 있다. (6. 8, 왼쪽 위)

일본 경제 4단체 및 일·한 경제협회 등 경제계 지도자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왼쪽 아래)

대한(對韓) 투자기업 경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당부했다. (6. 7, 위)





## 21세기 신동북아 시대를 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으로 떠날 때는 마음의 부담이 컸습니다. 현충일인데다 일본 국회에서 ‘유사법제’가 통과될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일 양국의 미래가 과거에 의해 속박받아서 안 된다는 신념으로 방일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확신

이번 방문에서 가장 주력했던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 강화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고이즈미 총리간의 허심탄회하고 진지한 협의로 의미있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조야의 적극적인 호응도 있었습니다.

먼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더욱 긴밀한 공조를 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 더욱 확고해진 한·미·일 공조체제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한·미·일간의 공조체제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한·미·일 공조와,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북·일 관계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이즈미 총리에게 ‘유사법제 통과’와 관련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일본이 평화주의 세력이라는 믿음을 주변국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와 같은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변화가 없음을 천명하고, 앞으로 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이해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의견 일치

다음으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고이즈미 총리는 명확한 역사인식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중인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논의를 조기에 정부간 교섭단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간 비자 면제 실현을 위해서, 우선 일본측이 한국의 수학여행 학생들에 대한 비자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포~하네다간 셔틀항공편의 조속한 운항도 추진기로 했습니다.

교역의 확대 균형과 투자 협력, 그리고 청소년과 스포츠 교류 확대에도 공동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을 비롯한 WTO(세계무역기구),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EAN(동남아 국가연합)+한·중·일과 같은 각종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양국간의 협력은 동북아 지역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야말로 미래의 한민족의 안전과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중국과도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서 반드시 성공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의 정계·경제계·문화계 인사들과도 두루 만나고, 일본 국회와 경제단체장 공동주최 모임에서 두 차례 연설도 했습니다.

저는 일본 국회 연설을 통해 “솔직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자”고 호소했고, 많은 의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 우리의 ‘동북아 경제허브’에 대한 협력 당부

일본 경제계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는 우리의 ‘동북아 경제허브’ 추진 계획을 소개하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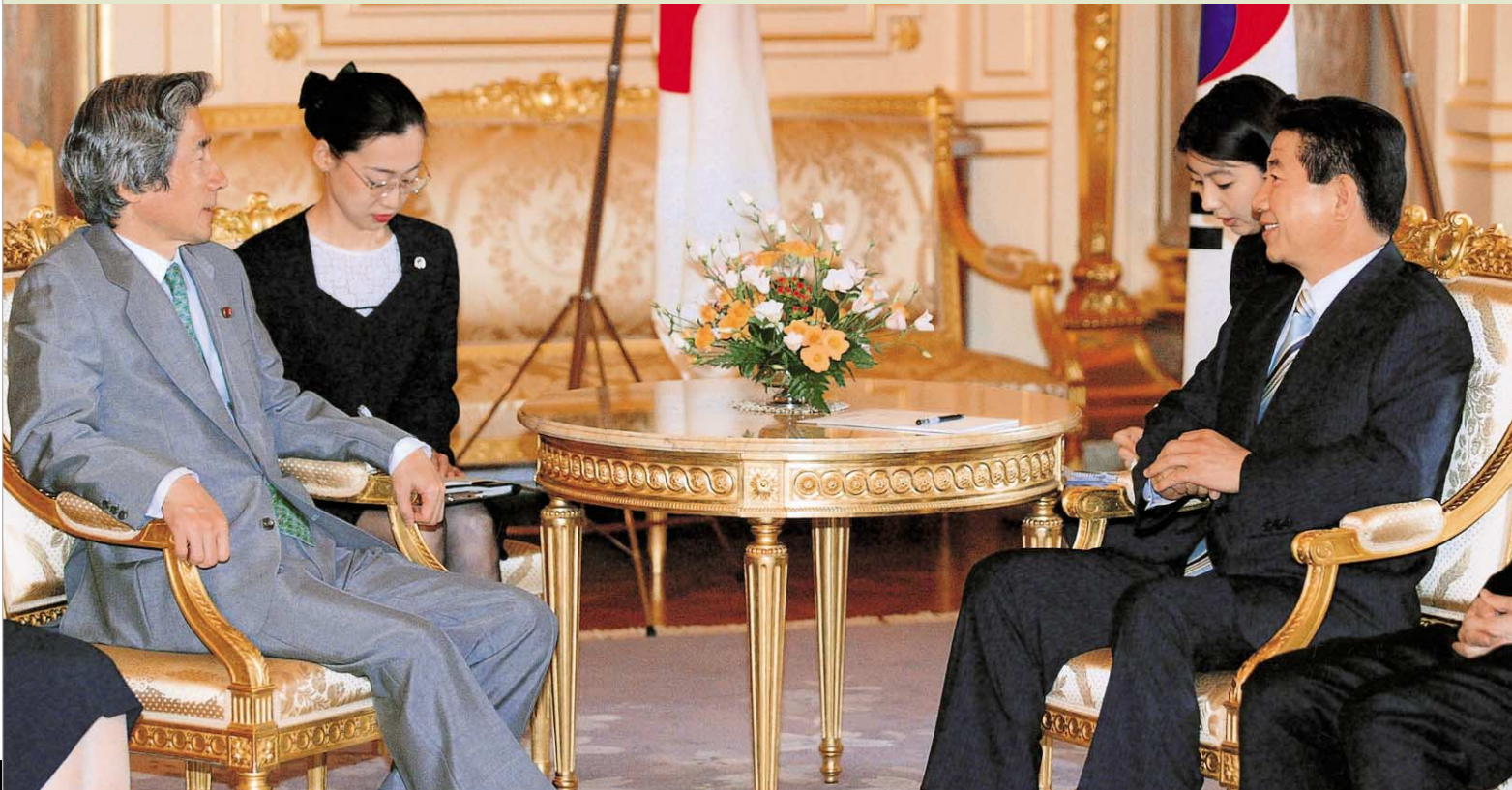
일본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에 대한 우리의 구상을 일본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저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친밀도를 높이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방일에서 저는 고이즈미 총리와 개인적인 우의와 신뢰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일 관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저는 매우 솔직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 재일 동포들을 만나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격려한 것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저는 고이즈미 총리와 국회 지도자들에게 재일 동포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 등 재일 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동북아시아의 미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는 관심과 기대도 큼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앞으로 경제를 챙기고, 국정의 안정을 기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대화가 뜨거워 시계를 정지시켜 확대회담이 늦게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 한·일 축구 정기전에서 서로가 상대국에서 각기 1승을 나란히 거둔 것은 손님 접대 문화가 한단계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높이 평가한다는 고이즈미 총리의 말에)  
- 한·일 정상회담에서(6. 7)

대화



노무현 대통령은 6월 7일 오전 숙소인 영빈관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와 동북아시아 정세, 양국간 실질협력과 인적교류 확대 방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방안 등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했다.

단독 정상회담

두 정상은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 단독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 강화, 남북한 관계와 일·북 관계의 개선 전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운영관 외교통상부 장관과 나중일 국가안보보좌

관, 신정승 외교통상부 아·태 국장, 그리고 일본측에서 가와구치 요리코 외무장관과 야부나카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이 각각 배석했다.

확대 정상회담

이어서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국인에 대한 일본 입국비자 면제의 조기실현 노력 ▷김포~하네다 공항간 항공편 조기운항 문제 ▷한·일 공동 미래 프로젝트를 비롯한 인적교류 확대방안 ▷무역 확대와 투자 증진방안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환경조성 문제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 '코리아-재팬 축제 2005' 등에 대해 협의했다.

공동성명 발표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후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한 한·일 협력기반 구축'이라는 부제가 붙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과 새로운 한·일 관계 구축에 관련된 양국간 현안 등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모두연설을 통해 "이번 정상 회담을 통해서 한·일 양국간에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비전을 논의했으며, 양자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두 정상이 당면과제인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일·미 3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 점을 무엇보다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북한 핵문

제의 해결에 있어서 대화와 압력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으로는 대화 쪽에 좀더 큰 비중을 두어서 말씀드린 점을 밝혀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총리 주최 만찬 참석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함께 7일 저녁 외무성 '이이쿠라' 공관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만찬 답사를 통해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관계의 미래를 위한 새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하고, "한·일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용기있고 솔직한 성품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고이즈미 일본 총리).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이번처럼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소독입니다(노무현 대통령).  
- 한·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6. 7)



대 화

한·일 정상 공동성명(전문)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위한 한·일 협력기반 구축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일본국 국민으로서 2003. 6. 6~9간 일본을 공식방문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체재중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국 내 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의 정신에 따라 한·일 양국이 과거 역사를 직시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공동개최 및 '한·일 국민교류의 해'를 통해 조성된 한·일 우호친선의 기초를 유지해 나가면서 신뢰와 우정을 꾸준히 심화시키고, 양국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결의를 함께 하였다.



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나.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북한이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5월 14일 및 5월 23일에 각각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과 일·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한·일간에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라.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한·일·미 3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중국·러시아 등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 등 현안문제가 평화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되고 북한이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면 북한에게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마. 또한 양 정상은 4. 23~25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북·중 회담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첫걸음으로서 유용하였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동 대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였다.

바.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조기에 후속회담이 재개되어 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한 관련 제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이 참석하는 형태의 다자대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1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동북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일·북 평양선언을 바탕으로 핵과 미사일 문제 및 납치 문제 등 일본측의 관심사항을 해결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형태로 일·북 국교정상화를 실현한다는 일본 정부의 기본방침을 지지하였다.

2 양 정상은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였다.

가. 이와 관련, 양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물론 어떠한 핵개발 프로그램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과 이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해

3 양 정상은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념에 입각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개척하고,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 걸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고 양측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의 성장에 공헌하며, 아울러 지역의 경제협력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 정상은 한·일 FTA 공동연구회에서 포괄적인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주목하고, 동 공동연구회가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한·일 양국은 이를 감안하여 조기에 FTA 체결교섭을 개시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한·일 FTA의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일층 노력한다.

나. 한·일 양국간 동반자적 경제협력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간 교역이 확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산업협력의 중요함을 인식한다. 또한,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계기로 상호간 투자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서로 노력한다.

다. 양 정상은 세계 자유무역체제의 유지·강화가 지역 및 세계의 번영에도 이바지한다는 공통 인식하에 WTO 도하개발아젠다 교섭 등에 있어서 협력해 나간다.

라. 한·일 양국은 범세계적 규모의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또는 다양한 지역협력의 틀에서,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환경문제와 국제테러, 해적, 마약·각성제 밀매 등 국가가 개입된 위법행위 및 국제 조직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4 양 정상은 미래를 향한 한·일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기반이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각계각층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따뜻한 우정, 그리고 활발한 인적·문화적 교류임을 확인하는 한편, 이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그간의 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특히 하기사항에 대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 양국민 각계각층간의 상호이해와 우정의 증진  
(1)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여 2005년을 'Korea-Japan

Festa 2005'로 하고, 양국간의 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의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한·일 관계의 차세대를 짊어질 젊은이들을 비롯한 국민 각계각층간의 상호이해와 우정을 증진시키는 기회로 삼는다.  
(2) '한·일 공동미래 프로젝트'를 보다 활발히 추진하여 현재 연간 1만명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 청소년·스포츠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 이 관점에서 2005년부터 한·일 고교생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3) 한·일 포럼을 비롯한 한·일간의 지적교류의 가일층의 발전을 도모한다.  
(4) 정치·경제·학술·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차세대 지도자간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나. 한·일간 1일 생활권 조성을 위한 노력  
(1) 한·일 양국은 조기에 한국 국민에 대한 사증면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 또한 일본측은 이를 위한 새로운 일보로서 한국 국민 중 수취여행 학생들에 대한 사증면제의 실현 및 기간한정 사증면제의 재차 실시를 검토한다.  
(2) 김포~하네다간 항공편의 조기 운항을 추진한다.

다. 한·일간 교류의 확대  
(1)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확대한다.  
(2) 양국간 관광교류 등의 가일층 확대를 위해 양측이 외국인 여행자 확대를 위한 캠페인에 대해서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3) 현재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사회보장협정 및 세관상호지원협정을 가능한 한 조기에 체결토록 양측이 노력해 나간다. 상호인정 협력 분야에서는 지금까지의 전문가의 작업현황을 감안하고, 한·일 FTA 공동연구회의 귀추도 보아가며 교섭개시에 필요한 작업을 일층 가속화한다.  
(4) 한·일 양국은 각기 상대국에서 Korea Week와 Japan Week 개최를 통해 지방간 교류를 증진시켜 나간다.  
(5) '한·일 신세기 교류 프로젝트'에 의한 교원 초청사업, 스포츠 교류사업, 한국어·일본어 상호 학습지원을 위한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6) 문화재 분야에서의 인적교류와 유·무형 문화재 교류 등을 활성화시키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5 양 정상은, 향후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동 공동성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키히토 천황 예방

### 공식 환영식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오후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숙소인 영빈관에서 아키히토(明仁) 천황 내외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나루히토 황태자 내외 등의 예방을 받고 국민방문 의전 절차에 따른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했다.

영빈관 테라스 앞에서 노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함께 천황의 안내를 받아 나루히토 황태자 등 황족 대표 및 고이즈미 총리 등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천황의 안내로 사열대에 단독 등단, 의장대의 사열을 받는 등 국민으로서의 영접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학교 아동과 민단 관계자 등 모두 100명이 한복 등을 입고 나와 태극기와 일장기를 흔들며 노 대통령을 환영했다.

### 아키히토 천황 예방

노 대통령 내외는 이어 천황 내외를 예방하고, 2002 월드컵 대회 공동개최 이후 더욱 돈독해진 한·일 우호협력 관계와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노 대통령은 천황 내외에게 서명을 곁들인 자신과 권 여사의 사진을 액자에 담아 선물하고, 백자 사면합(四面合) 한 쌍을 선물했다. 아키히토 천황은 노 대통령에게는 상감그릇 도예품을, 권 여사에게는 보석함을 각각 선물했고,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액자를 건넸다.

### 아키히토 천황 내외 주최 국민만찬 참석

6일 저녁 황궁에서 아키히토 천황 내외가 주최한 국민 만찬에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만찬 답사에서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통해서 이루어진 한·일 국민간의 교류와 교감은 두 나라의 내일을 위해 무엇보다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고 말하고, 그 열정과 감동을 양국 공동의 미래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감으로써 명실상부한 한·일 동반자 시대를 열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찬에는 양국의 각계 주요 인사와 주일(駐日) 외교사절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 일본 국회 방문 및 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일본 국회를 방문, 와타누키 다미스케 중의원 의장과 구라타 히로유키 참의원 의장을 면담하고, 21세기 한·일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양국 의회 지도자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중의원과 참의원 의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관계의 미래에 대해 연설했다.

노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과거는 과거대로 직시하며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용기”라고 말하고, 지난해 구성된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가 1998년 양국간 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제는 국민들에게 미래를 위한 협력의 새길을

제시해야 하며 한·일 관계의 미래는 양국이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그 공동의 목표로서 양국이 함께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지난 4월 베이징 3자 회담에서 비롯된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일·북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개방 촉진과 한반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불행했던 과거사를 상기시키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나올 때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고 말하고 “방위안보법제와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의혹과 불안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일본의 과거사 문제와 우경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일본 국회 연설

# 한·일 관계 발전의 밝은 내일

일본과 한·일 관계는 나에게 항상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나는 늘 마음속에 우리 두 나라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시대를 그려 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의 일본 방문이 결정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말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이것을 넘어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한·일 양국 국민이 마음을 활짝 열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양 국민이 과거사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스스로 없이 교류하며 서로 돕는 시대가 하루속히 열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양국 지도자들이 함께 풀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참여정부는 새로운 변화의 상징

5년 전 한국은 심각한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험난한 개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며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위기는 빠르게 극복되었습니다. 경제의 체질이 강화되고 투명성도 높아졌습니다. 전국적인 정보화 기반이 구축되고 IT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 ‘질적인 성장’으로의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많은 변화들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사회는 물론, 외교와 안보 문제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인 참여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한국의 ‘참여정부’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갈망해 온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사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나라,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정부입니다.

## 한·일 양국의 완전한 화해와 협력 필요

일본은 일찍이 서구문물을 받아들여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근대국가를 수립했습니다. 한때는 제국주의의 길을 걸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

아 국가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후의 일본은 경이적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했고,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확고한 ‘비핵(非核) 3원칙’과 평화주의를 유지해 왔습니다. 세계 1위의 대외 원조국으로서 국제적인 신뢰와 평판을 쌓아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했던 과거사를 상기시키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나올 때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방위안보법제와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의혹과 불만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과 의혹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면, 또는 과거에 얽매어 감정에만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본은 이제까지 풀어야 할 과거의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2년 후면 한·일 국교정상화 40돌을 맞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우리 두 나라 국민들이 완전한 화해와 협력에 이르지 못한다면, 양국의 지도자들은 역사 앞에 부끄러움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의원 여러분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용기있는 지도력’을 정중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솔직한 자기반성을 토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평가하도록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양국은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과거의 역사는 있는 그대로 인식하자’는 1998년 양국 정상 합의 정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 21세기 동북아 시대는 양국 공동의 목표

그리고 이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국민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의 새길을 제시합니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양국이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공동의 목표로서, 양국이 함께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일본의 청소년들이 도쿄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과 서울을 거쳐 베이징까지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결코 먼 미래의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유럽의 각국들은 이미 반세기 전에 미래를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957년에는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날 유럽은 단일시장·단일통화까지 실현했고, 국민들 간의 마음의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한·일 두 나라가 뜻을 함께 하면, 동북아시아에서도 이러한 협력의 미

래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의 경제규모는 이미 전 세계의 5분의 1을 넘어서고 있고 십수년 내로 1/3이 될 것입니다. 인구는 유럽의 4배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시장과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내에는 아직도 불신의 요소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격차도 있고, 세계적인 지역통합 추세에도 크게 뒤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의 동북아 시대를 실현해 나가려면 누군가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입니다. 무엇보다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의 전통과 시장경제의 경험을 공유해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아말로 양국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한·일 공동의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지금 동북아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착실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정책구상은 한국을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허브(Hub)’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또 태평양에서 대륙으로, 사람과 물자, 자본과 기술, 정보와 문화가 자유롭게 통과하고 머물 수 있는,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은 지속적인 시장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시스템 전체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이 없는 열린 시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성공을 거두면, 한국은 동북아시아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번영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 한반도 평화 정착은 동북아 시대의 선결과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평화가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평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입니다.

한국의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공존과 공영을 구사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남북한간의 화해·협력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북정책은 투명하게 추진될 것이며,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우



방들과의 협조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될 경우, 그것은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게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갈등과 긴장고조는 우리 모두의 불행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지난 4월 베이징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대화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하루이틀에 해결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면, 평화적인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공생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북한이 그 길을 선택할 때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일 관계 발전의 밝은 내일

한·일 두 나라가 공동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릴 토양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두 나라는 월드컵의 대성공을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양국의 경제교류와 인적교류도 뚝뚝해야 뚝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너무도 중요한 교역의 상대국이자 투자의 파트너입니다.

두 나라를 왕래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루에 1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양국 간에는 매일 50여회의 항공편이 날고 있지만, 이것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활발한 교류입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서울과 도쿄를 잇는 서해 항공편이 개설되고, 한·일 양국을 비자 없이 자유롭게 왕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자연스러운 문화교류가 두 나라 국민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중문화의 추가적인 개방조치를 적극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간의 대화와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양국이 함께 노력해 가기를 희망합니다. \*연설문 요약





▲ 나카소네 전 총리 접견

▲ 쿠마가이 보수신당 대표 접견

▲ 황족 다카마도노미야 미망인 접견

성실하고 솔직하며 서글서글한 인품에 감명을 받곤 했습니다(노무현 대통령).  
(일본 국민과의 대화에 관해) 일본 국민이 노 대통령의 인간적인 매력을 접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커지기를 기대합니다(고이즈미 일본 총리).  
- 일본 총리 주최 만찬에서(6. 7)

대화



## 두 정상 신뢰 바탕 '공동성명 실천' 다짐

- 과거사 문제 등 "직접 사과 요구한 것보다 더 큰 부담"  
- 노 대통령 일본 방문 어떤 성과 거뒀나(상)

노무현 대통령은 6일부터 4일간의 일본 방문 동안 정상회담 과정에서 쌓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의 총리 사이의 신뢰는 '언제든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 이번 방일에 수행한 청와대 보좌진들의 평가이다. 반기문 외교보좌관은 이를 '워킹 파트너십(working partnership)'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고이즈미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명' '경의' '친근감' '호감' '솔직' '용기' 등의 표현을 거듭 사용하며 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신뢰를 표했다.

### 日 총리, "공동성명 실천에 전력" 약속

특히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월 노 대통령의 취임식 회담 때부터 쌓아온 신뢰관계를 강조하며 "개인적 우정과 신뢰관계를 소중히 하면서 공동성명의 실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일본으로부터 이끌어냈다. 고이즈미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추가조치, 압력, 엄정한 대처 등의 말과 표현은 모두 평화적 해결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다. 대화가 중요하므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며 이런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해 이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지난 4월 열린 베이징 3자 회담의 후속회담 조기개최에 의견을 같이해 '대화의 불씨'를 살려놓은 것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

노 대통령은 한·일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뿐 아니라 대결과 냉전이 극복되고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새로운 동북아 시대의 비전 실현을 위한 외교적 기반을 다졌다.

이 비전에 대해 많은 일본 정치인들이 공감함을 표했다. 노 대통령은 "나카소네 전 총리는 적극 찬성하며 여러가지를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가 적지 않았다. 스미토모화학과 해리슨도시바, 미츠모요 등 일본 부품·소재 업체는 지난 7일 노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국에 신규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스미토모화학의 코사이 회장은 한국회사의 공장 증설에 투자하기로 하고 투자 신고서를 윤진식 산자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노 대통령의 방일에 동행한 경제계 대표들은 지난 8일 일본 주요 경제단체장들과 모임을 갖고 "동아시아 자유경제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간 경제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과거사 문제와 유사법제 처리 등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정부나 정치인들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하거나 유감을 표하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을 안겼다"는 것이 외교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동아시아 자유경제권 위한 경제협력 강조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본인들이 세계적인 가치기준에 맞추기를 바란다(니케이신문 인터뷰)" "일본이 주변국의 신뢰를 받고 역내 공동번영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나기기를 기대한다(공동기자회견)" "이번에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사 문제가 끝났다거나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동포 간담회)" "답변은 가슴에 묻어두겠다(일본 국민과의 대화)" 등의 일본 도착 시점부터 공식·비공식 발언을 했다.

이는 "미래를 위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명분을 살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향후 국제사회의 반응은 일본에 달렸다'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공을 일본측에 넘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노 대통령의 말대로 '과거사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64%의 일본 국민들을 비난해 '비 듣자 마당 쓸라고 한다'는 말의 역효과나 저항감을 피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 제7호 / 2003년 6월 10일(화)

## '노무현 알리기' 성공... 소중한 '외교 자산'

- '국민과의 대화' 등 진솔한 인상...日 총리와도 두터운 신뢰 쌓아  
- 노 대통령 일본 방문 어떤 성과 거뒀나(하)

7일 저녁 고이즈미 총리 초청 만찬장. 외무성 부속건물인 이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연출됐다.

사회자가 만찬이 끝났음을 알렸는데도 이날 만찬의 주인공인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가 자리를 일어서지 않고 1~2분간 대화를 계속한 것이다.

이 때문에 참석자들은 본의 아니게 즉석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행운(?)을 누렸다. 그만큼 만찬장에서 두 정상간 대화는 뜨거웠고 진지했다.

### 갈수록 日 국민·언론 긍정 평가

두 정상은 이에 앞서 공식회담에서도 당초 예정시간보다 20분을 넘겨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정도로 친밀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의 오구치 의전장을 비롯해 한·일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깊은 신뢰관계를 쌓았다"고 평가했다.

비단 고이즈미 총리뿐만이 아니다. 방일기간 중 노 대통령에 대한 일본 국민 및 언론의 평가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 대통령 방일 기간 중 통역을 담당했던 외무부 장혜령 사무관(동북아과)은 "행사가 거듭될수록 반응이 좋았다. 귀국할 때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상외교에서 당면 현안에 대한 조율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경우 일본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노무현 알리기'는 또 하나의 숙제였다. 개인적인 홍보 차원을 넘어서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같은 '통과의례'가 불가피했다.

### TBS 행사, 천황도 '이례적' 언급

특히 일본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것이 8일 TBS가 방영한 '일본 국민과의 대화'였다. 9.2%의 공식 시청률을 기록한 이 행사는 말

은 날씨에 행락 인파가 많았던 휴일 저녁 프로그램임을 감안하면 '대성공'이라는 것이 TBS측의 자평. 이 행사는 1,100만명의 일본 국민들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시종일관 진솔한 태도를 견지했다. 일본 국민들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사 등 민감한 현안을 피하지 않았고, 자신의 철학·정치역정 등을 당당하게 설명했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제작진이 '성공 자축연'을 가질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9일 오후 작업인사차 영빈관을 찾은 아키히토 천황은 "어제 방송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잘 되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일본 천황의 이러한 언급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고, 각 방송사가 뉴스시간에 특별히 소개하기도 했다.

일본 재계도 노 대통령이 경단련 등과의 간담회에서 과거 일본을 방문한 한국의 대통령과 달리 "우리도 개선해야 할 것이 많다"는 식의 솔직한 어법을 구사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경단련의 한 관계자는 "뜻밖이었다. 오히려 한국투자에 호감이 간다"는 반응을 보였다.

### 솔직한 어법에 '한국 투자' 약속

이같은 '노무현 알리기'는 10일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이 "유화한 표정, 강한 의지, 한국의 전후세대 첫 대통령으로서 방일한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국민들에게 남긴 인상이다"라고 사설에서 언급함으로써 대미를 장식했다.

이번 방일기간 중 일본 정부와 국민들에게 각인된 '친근한 노무현' 이미지는 앞으로 한·일 관계가 보다 굳건해지는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것이 외교 관계자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 제7호 / 2003년 6월 11일(수)





### 일본 각계 지한(知韓) 인사들과 오찬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7일 낮 숙소인 영빈관에서 다니노 사쿠타로 전 주중 대사(이수현장학회 회장),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와카미야 요시후미 아사히신문 논설주간, 테라다 테루스케 포린 프레스센터 이사장(전 주한 대사) 등 한국과 한반도 문제에 조예가 깊은 학자와 외교 전문가, 언론계 및 문화계 등 지한(知韓)인사 20여명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긴요한 과제이며, 21세기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간 인적교류와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대한(對韓) 투자기업 경영인들과의 간담회

7일 오후 영빈관에서 세토 유조 일·한 경제협회 회장(아사히 맥주 상담역), 카나이 츠토무 히타치 회장, 코사이 아키오 스미토모화학 회장, 고바야시 요타로 후지제록스 회장,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주요 일본 기업의 경영인 13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확대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노사문제 등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올해 발효된 한·일 투자협정을 계기로 특히 일본의 우수한 부품 및 소재기업들이 한국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조운제 대통령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일본 각계 지한인사 초청 간담회

### 일본 경제단체 공동주최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8일 낮 도쿄 시내 경제단체연합회(經團連) 회관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同友會), 일본무역회 등 경제 4단체와 일·한 경제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오찬간담회에 참석, 연설했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동북아시아 물류와 연구개발, 금융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일간 투자와 기술협력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특히 중소기업과 부품·소재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의 기업들이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여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에는 오쿠다 히로시 경단련 회장(도요타 회장), 무로후시미노루 일본상공회의소 특별고문(이토cb 상사 회장), 기타시로 가쿠타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 미야하라 켄지 무역협회 회장(스미토모 상사 회장), 세토 유조 일·한 경제협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수행중인 우리나라 경제단체장 및 일본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한·일 경제계에서 이런 노력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고, “동북아 지역의 번영은 결국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필수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정치인과 경제인이 힘을 합쳐 동북아의 번영시대를 열어가는 데 공동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 일본 정계 지도자 접견

노무현 대통령은 이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일·한 협

기금 과거사에 대한 발언들이 잘 가는 교류열차를 예고없이 멈추게 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미래를 향해 가는 우리 열차는 달려나가야 합니다. 도쿄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 서울을 거쳐 베이징으로 가면서 함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꿈을 반복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각계 지한인사 초청 오찬간담회에서(6, 7)



대화

력위원회 회장), 칸자키 다케노리 공명당 대표, 쿠마가이 히로시 보수신당 대표, 칸 나오토 민주당 대표, 도이 다카코 사민당 당수 등을 차례로 접견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와 한·일 우호협력의 증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 재일 동포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권양숙 여사와 함께 8일 오전 도쿄의 아카사카 프린스 호텔에서 일본 전역에서 모인 재일 동포와 주일 공관장 등 750여명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고국이 어려울 때마다 재일 동포사회가 일치단결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온 동포사회 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노 대통령은 또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 속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성숙한 민주주의와 역동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해 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재일 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 재일 동포 간담회



일본 경제단체 공동주최 오찬연설 (2003. 6. 8)

# 경제 개혁의 목표는 '글로벌 스탠더드'

## 한국 - 동북아의 번영에 적극 기여

한국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항·광양항,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물류기반도 손색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북간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일본에서 들어온 사람과 물자가 중국과 시베리아를 거쳐 멀리 유럽에까지 가게 됩니다. 정보화 수준은 이미 세계 선두권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나라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협력의 허브(Hub)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물류와 연구개발·금융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한국 경제는 물론 동북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 협력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지난 1월 경단련이 제시한 '동아시아 경제연대 강화' 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 강도 높은 개혁으로 선진 경제시스템 구축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그 이전에 비해 훨씬 투명하고 튼튼해졌습니다. 지난 5년간 강도 높은 개혁과 구조조정을 추진해 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결코 자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개혁만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개혁의 목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회계제도와 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금융부문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과학기술 혁신과 IT 분야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첨단산업을 육성해 가

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을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노사관계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법과 질서를 확고히 지키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새로운 노사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사간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불법과 폭력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저와 한국 정부는 투자하기 좋은 환경,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

지 사례를 들어 외국 기업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온 경제계 인사 가운데 일본인이 한 분 계십니다. 한국의 일본 기업인 모임인 '서울 재팬클럽'의 다카스기 노부야 이사장님이 바로 그 분입니다.

저는 다카스기 이사장님을 헌법상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외국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으로 여기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올해 연초에 '한·일 투자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양국간 투자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해서 외국인의 기업환경과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연설문 요약



▲ 오쿠다 일본 경단련 회장 접견



# 언론회견



TBS 주최 '일본 국민과의 대화' (2003. 6. 8)

## 미래지향의 한·일 관계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후 TBS(도쿄방송) 스튜디오에서 일본의 대학생, 주부, 농어민, 기업인, 샐러리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대통령-솔직하게 직접 대화'라는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노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에서 참여정부의 새로운 정책비전과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한 의지를 밝히고, 양국 공동의 미래를 위해 두 나라 국민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과거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주룽지 전 중국 총리가 출연한 바 있으며, 노 대통령이 참여한 프로그램은 8일 오후 6시부터 일본 전역에 방송됐다.

## 대화록(요약)

▶ 젊은이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통령에게 뭘 기대합니까?

**대통령** 한국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했으나, 정신·문화적 영역에서 원칙과 신뢰, 페어플레이 문화가 크게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젊은이들 생각이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남북통일은 10년 안에 실현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대통령** 예측하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평화를 안정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활발하게 교류를 해 가면 될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 국민들을 어떻게 리드해 나갈 생각입니까?

**대통령** 정치를 하며 부닥쳐 온 문제는 서로 편을 갈라 불신·적대·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웃 나라간에 싸우고 감



▲ '일본 국민과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는 일본 국민들

정이 남아 아직 다 풀어내지 못했는데,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동서간 갈라져 대립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목·불신하지 않는 사회, 토론하고 합리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사회, 국민들이 그렇게 하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 북한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일본이 높은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 북한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원인은 북한이 제공했으나, 냉정히 분석하면 북한은 우리보다 약하고 일본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전쟁은 미사일 몇 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르게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고 위기감을 가지면 적대감이 생기고 잘못 충돌해 큰 불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 북한과 한국은 독립국가로서 공존해야 하는지, 아니면 통일이 돼야 합니까?

**대통령** 이념적·논리적·법적 질문은 남북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적 자격을 논쟁하기 전에 현실적으





로 존재하는 실체와 대화하고, 상대를 인정하고 거래하고 약속하는 관계를 통해 평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핵을 포기하게 하고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되면 언젠가는 통일이 됩니다.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능한지요?

**대통령** 북한이 '대화 상대가 되느냐'에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나, 서로 협력하면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북한이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들도 생각이 있을 것이고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이즈미 총리와 미·중 지도자와 협력해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할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 나라를 들어 주십시오.

**대통령** 일본이 첫번째인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밀접하게 결합되고 의존돼 있어 아주 가까운 나라여야 합니다. 그 다음 중국이 크게 발전하면 일본과 한국 시장이 아

주 커집니다. 한·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중국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잡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일본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므로 미국이 개입해 있는 것은 동북아 안정 세력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중·미·일이 있고 북한과 러시아와도 협력해 경제도 함께 번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처럼 서로 의존하는 집단경제가 됐을 때 모두 안전하고 수준 높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평소 도쿄에서 기차를 타고 현해탄을 지나 부산, 서울, 베이징을 여행하며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는 시대를 꿈꿉니다.

▶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교류, 과거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대통령** 저는 과거사 문제를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사는 미래를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따라 나쁜 기억으로 되살아나기도 하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잘 풀어나가면 과거사는 역사로만 남을 것입니다.



# 동경-오사카 이원생방송 등 '관심집중'

- 1천만명 시청, 여론조사서 98%가 '한·일 관계 좋아질 것' -

TBS 국민과의 대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가진 8일 저녁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국민과의 대화'가 성공리에 끝났다. 노 대통령은 각계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국민과의 대화'에서 시종 차분하고 진지한 모습으로 질문에 성심성의껏 응했다. 이날 행사는 일본 국민 1천여만명이 시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사를 주관한 TBS는 각종 그래픽과 자료화면, 오사카와의 이원생방송 등을 통해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대화가 끝난 후 현장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8%가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사가 끝난 후 진행자인 치쿠시 데쓰야 씨는 "지금까지 경험한 정상 가운데 가장 감동을 준 지도자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모든 사안에 대해 자신의 분명한 소신과 원칙을 표명하면서도 유연성과 순간적인 상황 판단을 잃지 않은 매력적인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 69호 / 2003년 6월 9일(월)

전통적으로 한국 여성들은 재물을 넣는 창고와 열쇠를 관리해 왔습니다. 요즘은 한국 여성들이 남편의 통장을 갖고 있어 월급이 바로 들어갑니다. (가정의 실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나, 부인이 쥐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려운 질문에 걸렸습니다. 선거 때도 잘 몰라 땀을 흘렸는데 오늘도 땀 내고 끝내겠습니다. (좋아하는 일본 축구대표 선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 일본 국민과의 대화에서(6, 8)

## 대 화



▶ 북한의 일본인 납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통령** 납치는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행위입니다. 국가간으로 보면 주권 침해입니다. 진상을 밝혀야 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일본 국민들의 심정을 공감합니다.

▶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재미있는 일본 만화와 소설은 많은 (한국) 사람이 봅니다. 한때 한국의 노래방에서 일본 노래 한 곡씩은 배우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후세대지만 지금은 신인류 세대라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접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법으로 막아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협의가 조금 남아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대통령이 일본 총리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 내가 일본 총리가 된다면 동북아의 평화 주도세력으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이웃나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사를 퇴치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주창하고 함께 만들어감으로써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세계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겨루고 문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특파원들에게 방일 성과를 설명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

▶ 방일 성과를 정리해 주십시오.

**대통령** 북핵 문제는 역시 제일 큰 과제였습니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방일에서도 평화적 해결을 다짐받았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압력을 얘기하는 것은 북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제일 중요한 성과로 생각합니다. 동북아가 대결의 역사, 냉전시대의 유물을 버리고 경계선을 해소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나는 동북아 화해·협력을 강하게 제기하려 노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느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 대통령께서는 대화를, 고이즈미 총리는 압력을 말하는 등 차이를 보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총리에게서 그런 말이 나왔

### 수행기자단과의 조찬간담회 (2003. 6. 8)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위한 공조

**대통령** 일본 방문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방문했을 때와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무력행사를 하지 않고 평화적 해결 원칙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가 쉽게 풀릴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동북아 시대의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그 자체에 매달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증거는 없으나 김치를 많이 먹는데 사스에 안 걸렸습니다. 김치가 많이 팔리기를 바랍니다.  
(김치와 사스간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옛날에는 불만이 많았으나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 얼굴이 괜찮아 보여 요즘에는 마음에 듭니다.  
(노 대통령의 용모에 대한 질문에)  
- 일본 국민과의 대화에서(6. 8)

대화



으나, 우리는 대화에 무게를 뒀다고 토를 달았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고이즈미 총리는 기자 질문에 답하면서 압력에 대해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실제 두 사람간 대화 분위기와 가까웠습니다.

고이즈미 총리 생각은 평화적 해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나 일본 여론의 강경, 미·일 공동성명 등으로 인해 중간을 취하려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 동북아 시대라는 비전 제시에 대해 일본 측의 메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동북아 구상을 말한 지 6~7년이 넘었습니다. 당시 북방경제라며 제안했지만 그때도 별로 호응은 없었습니다. 이런 개념은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과 일본의 처지가 달라 한국은 절실하지만 일본은 덜 절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도 지향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적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정부간 교섭은 언제 시작되는지요. 또, 이로 인해 불이익이 생기는 부문 등 갈등조정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나 분명한 것은 가급적 빨리 서둘러야겠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빨리 하기를 원하는만큼 우리 쪽이 속도를 좌우할 것인데 느린 걸음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갖추어야 할 여건도 있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일본의 성의를 촉구할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으로 적자의 확대이나, 장기적으로는 큰 이득이 된다고도 합니다. 이득이 한 쪽으로만 갈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의 조정이나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 해보자는 게 제 속마음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비자 면제, 기술 이전, 투자,

기술 제휴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FTA는 빨라질 것입니다.

▶ 일본 정계 지도자 등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성의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면 어떤 게 있을지요?

**대통령** 나는 '미래지향' 이라고 했습니다. 지향은 동북아와 세계의 보편적 가치 위에 서야 합니다. 일본이 그야말로 경제 등 국력과 자위대 등 군사력에 걸맞은 역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 국민, 인류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보편적 가치,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유럽에서 독일이 받는 대우는, 일본과 다릅니다. 독일이 세계평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대체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잘했든, 못했든 의심받는 게 사실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일본 국민과의 대화에서 여론조사를 보니 일본 국민 64%도 과거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비난하면 마음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일본 스스로에게) 맡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언론 보도문

일본 젊은 세대에 다가가는 한국 지도자

노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일정은 시민과의 만남이란 일본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노 대통령은 일본인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진다.

외교관들은 자신을 대중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월드컵 공동개최 덕분에 해빙된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는 데 관심이 높다고 말한다. 노 대통령은 일본 국민, 특히 일본 식민시대의 기억을 갖고 있는 구세대보다 덜 보수적이며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신세대에 직접 호소하기를 원하고 있다.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 이후 노 대통령은 한국 정치의 케케묵은 기존 관습에 도전하고 일반 국민과의 접촉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 그는 가끔 하위직 참모들과 청와대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하고 자신의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맞대면을 하기도 한다.

노 대통령의 일본 방송 데뷔에 앞서, 같은 방송에서 1998년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인상적인 TV 출연과 다소 딱딱한 정견발표 같았던 주룽지 중국 총리의 출연이 있었다. 민방인 TBS조차도 일반 국민이 외국의 귀빈에게 자유로이 질문하는 것을 불안하게 여겨서 질문을 여과하자고 제의했으나 노 대통령이 거부했다. - 영국 「Financial Times」 6월 6일자

노 대통령 방일, 동아시아의 꿈을 이야기하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온다. 변혁과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당선된 노 대통령은 일본 식민지 통치를 체험하지 않은 첫 대통령이다. 고이즈미 총리와 회담하고 국회에서 연설하고 시민과도 대화한다. 북한 문제와 한·일 관계는 물론, 양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미래상에 대해 장기적이고 폭넓은 시야로 의견 교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핵개발을 비롯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이 지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양 정상은 명확한 메시지를 발표하기를 원한다.

“동북아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노 대통령은 2월의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럽연합과 같은 질서를 이 지역에서도 조성하고자 하는 의욕을 표명한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와 노 대통령의 만남은 노 대통령의 취임식 때의 회담에 이어 두번째다. 모두 권위를 싫어하고 솔직한 말투를 좋아한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일본 「아사히신문」 6월 6일자 사설

전후에 태어난 첫 대통령, “낙관적 미래를 확신”

지도자는 긍정적·낙관적인 미래를 확신하고 그에 대한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힘주어 ‘지도자론’을 이야기했다. 56세.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후에 태어난 대통령의 패기가 내비쳤으나 북한 문제를 둘러싼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고민도 감추지 않았다.

경제제재와 군사행동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끝까지 대화를 추구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 등에서는 이상주의적으로 비쳐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상이나 신념만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있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은 솔직하게 한반도 정세 분석을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은 군사경계선에서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이 놓여진 상황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은 없다는 것일 수도 있다.

- 일본 「니케이신문」 6월 7일자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노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 앞서 가진 현충일 추념식에서 한국은 과거를 망각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고 연설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도 한·일간의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끝나고 난 후 출생한 첫 대통령이다.

노 대통령은 6월 7일 고이즈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중요 현안은 대북정책과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향후 북한과의 (다자)대화에도 참여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6월 7일자





**한·일 정상회담 가져**

노무현 한국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양국 우호관계 및 양국 투자협력 강화 관련 회견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성명에서 양국은 1998년 한·일 공동선언 정신을 준수하고, 과거 역사를 잊지 않는 기초하에 21세기 미래의 양국 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일 양국은 공통된 민주·시장경제 이념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기 위하여 경제무역 동반자 관계 확대, 한·일 자유무역협정 조기 체결, 청소년 문화교류 강화 등을 포함한 각 영역에서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또한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세계의 핵 비확산에 모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중국 「인민일보」 6월 8일자

**노무현 대통령, 대일 실리외교 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경제단체가 주최한 간담회와 일본 국

민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일 외교정책을 천명했다. 노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하고 있을 때, 일본 참의원이 유사법제를 통과시켜 이번 방문에 그들이 드리워졌고, 한국 각계의 강한 비난을 받았으며, 이는 노 대통령의 방일 및 대일 외교에 압력을 가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은 망설임 없이 계획대로 방일 일정을 추진했다. 노 대통령이 압력을 이겨낸 것은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한·일 관계의 대국을 위해서였다. 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전환점으로 한국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은 조정을 가속화하여 보다 실리적인 방향으로 향했다. 오랫동안 한국 정부는 대일 관계에 있어 투쟁과 협력을 동시에 추진하는 원칙이었다. 방일중에 노 대통령은 한·일 양국간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켜 강조했는데 이는 일본 측의 적극적인 반응과 동감을 받았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의 목표를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의 동반자 관계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일 공동 성명은 한·일 양국이 정치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향후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초를 확립했음을 보여 주었다.

- 중국 「문화보」 6월 9일자

**노무현 대통령 방일외교 주요 일정**

날 짜	주요 일정	날 짜	주요 일정
6월 6일(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 출발, 도쿄(東京) 도착</li> <li>공항 도착행사</li> <li>공식환영식</li> <li>천황 내외 예방</li> <li>「일본경제」신문 회견</li> <li>천황 내외 주최 만찬</li> </ul>	6월 7일(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일 정상회담</li> <li>공동기자회견</li> <li>각계 지한(知韓)인사 초청 오찬</li> <li>대한(對韓) 투자기업 CEO 간담회</li> <li>故 다카마도노미야(高円宮) 미망인 접견</li> <li>일본 정계 지도자 접견</li> <li>총리 주최 만찬</li> </ul>
6월 8일(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일 특파원단 조찬간담회</li> <li>동포 간담회</li> <li>일본 경제단체 공동주최 오찬</li> <li>일본 국민과의 대화</li> </ul>	6월 9일(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행기자단 조찬간담회</li> <li>NHK 회견</li> <li>일본 국회(중의원) 연설</li> <li>천황 내외 작별인사</li> <li>도쿄 출발, 서울 도착</li> </ul>



「일본 국민과의 대화」 진행 중 대형 스크린에 비친 노무현 대통령